



오늘 세계 책의 날

도서관 개관 6개월...영광 대마초등학교의 변화



영광 대마초등학교 전교생이 '큰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 위쪽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다락방'. 아이들은 이곳에서 앉거나 뭉쿨며 책을 본다.

/영광=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컴퓨터 대신 '책의 나라'서 놀지요

■ 세계 책의 날
<world book day>

199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학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날로, 매년 4월 23일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나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쇄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바로 이 날인 데서 유래한다.

스페인에서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영국에서는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 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이 전개된다.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대마초등학교'의 아침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언니, '대단한 도전' 빌릴 수 있어요?" "풀라맨 우주원정대' 좋던데, 누가 불래?"

이 학교 본관 1층에 자리한 '큰샘 도서관'은 매일 아침 한바탕 '책 빌리기 전쟁'이 벌어진다. 면소재지 학교지만, 주변에 학원 한 곳 없는 탓에 들과 산에서 놀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놀면서 생긴 변화다.

전교생이 61명에 불과한 이 학교에 도서관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문화관광부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삼성 사회봉사단' 등이 동참해 교실 두 칸(165㎡)을 도서관으로 단장하고, 1천권의 책을 기증했다. 보유

도서는 4천870권. 도서관 이름은 '큰샘'.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가 샘처럼 솟고,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담

찾는 것이 습관이 됐다. 전답 사서 교사가 없어 6학년생 2명이 교대로 대출을 맡지만, 좋아하는 책이 많아 학생들은 마냥 즐겁다.

"동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매일 도서관을 찾았어요."

도서관을 배경으로 텔런트 윤은혜와 함께 '삼성 희망현장포트' CF에 출연해 전국 스타가 된 오승화(11·5학년)양.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벌써 다 이룬 듯 초롱초롱한 눈을 빛낸다. 승화는 동생 지원(7)이 책도 빌려다 준다.

'큰샘 도서관' 6개월 운영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본사 취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도서관 개관 전엔 '일주일 독서량 5권 이상'인 학생이 전교 61명 중 6.7% (4명)에 불과했으나, 개관 후엔 48.3%(28명)로 급증했다.

전에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학생은 18.3%(11명)이었는데, 요샌 '읽지 않는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도서관은 '매일 이용'(60.7%·37명) 하거나, '이틀에 한번꼴'(33%·20명)로 들렸다. 책도 ▲과학(27.9%·17명) ▲동화(23%·14명) ▲소설(11.5%·7명) ▲위인전(8.2%·5명) 등 다양하게 읽고 있다. 학생들은 '매우 만족'(54명)하거나 '만족'(7명)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학교 정대석 교장은 "도서관이 생긴 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끼고 다니고, 발표력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영광=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생 48% '일주일 5권 이상 독서'

책 많이 읽으니 발표력도 좋아져

고흥 경찰서장 한밤 술취해

부하직원 관사로 불러 폭행

경찰청, 직위해제 김찰 촉수

경찰서장이 근무 중이던 당직 야간 상황실장을 관사로 불러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20분께 고흥경찰서장 김모(55) 총경이 야간 당직 상황실장인 이모(48) 경위를 관사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폭행했다.

김 서장은 고흥군 임수협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서 정문에서 만취상태로 고성방을 일삼는 주취자와 초소근무자가 승강기를 벌이던 것을 목격하고 상황실장을 불러 "왜 보고도 하지 않았느냐"며 이 경위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장에게 폭행당한 이 경위는 순천의 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김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22일 김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 고흥경찰서장에 박승주 전남경찰청 경무과장을 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서장이 상황실장에게 보고가 늦은 이유를 추궁해 중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구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된 김 서장은 지난 2002년 5월15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출마한 임모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직위해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계모임 말다툼 끝 공기총 위협

광주 북부경찰은 22일 계모임에서 회비 미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공기총으로 계원들을 위협한 일용직 노동자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K 음식점에서 계모임에 참석한 회원 김모(여·58)씨가 "밀린 회비 2만원을

내라"며 빙자한 주는데 격분, 집에서 공기총을 가져와 계원 7명을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만취 상태에서 보관 중이던 5.0mm 공기총을 가져왔으며,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공기만 채워 식당 바닥에 한 차례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더 좋은 건축 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센스
도어·대리점

KCC창호·시스템창호·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82)525-3002 ▶광주점:(063)717-5051

수학여행 간 고교생 유괴 장난전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간 광주 고교생이 실종 한 달이 넘은 양지승(9·서귀포초등 3년)양 낭치범이라며 장난 전화를 했다가 즉결심판 행.

○~22일 제주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광주 C공고 1년 B(15)군이 지난 18일 오전 7시께 "나는 현상수배범인데 양지승이 데리고 있다. 1억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40여 명의 수사관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는 것.

○~경찰은 경법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B군의 즉결심판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는데, B군은 "호기심에 속신인 코노미니엄 공중전화를 이용해 장난전화를 했다"고 회피.

○~경찰은 신고포상금 1천만 원을 내걸고 연인원 3만명을 동원했지만, 양양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같은 날 다른 장소서

연인들 숨진 채 발견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G모텔에서 박모(여·30)씨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했다. 박씨는 이날 광주시 동구 S동 공익근무요원 임모(23)씨와 함께 이 모텔에 투숙했다.

연하의 애인 임씨는 앞서 이날 새벽 4시30분께 동구 학동 모 아파트 출

입구 2층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년 전부터 사귄 두 사람은 남자 측 집안의 결혼 반대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률기자 kroh@

평택신도시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3,636 희대단지!
[평택경찰·호수공원·조경의 최고 입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대, 최고의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주日報 창사 55
1952-2007

서부영업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6-2번지 동화빌딩 4층 | TEL : 062) 510-1740 | FAX : 062) 528-0138 | 전국대표번호 : 02) 6007-3114

PM 기어리스 엘리베이터 iris ①
이제 중·저속 엘리베이터의 표준입니다.

01 Ride Comfort
안정된 승차감
02 Environment Friendly
환경친화형
03 Energy Saving
에너지 절감형
04 Space Saving
공간 활용형